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특히 시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됨.)
2. 인물들의 심리 및 특성, 세 인물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3.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팔 시루떡',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뿐만 아니라 '삼포' 등 공간에 대해서도 출제됨.)
4. 시점을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묻는 문제

[지문 분석]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일하던 공사판의 일이 끊기면서 새로운 공사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뜨내기 영달의 삶) 새벽의 겨울바람(영달이 처한 황량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①. '겨울'과 '바람'은 보통 고통, 시련 등의 의미를 지니는 소재임. 이 작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 오는 아침 햇빛 아래 햇빛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영달이 처한 황량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②)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영달이 처한 황량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③ '영달이 서 있는 '햇빛은 들판'의 풍경을 묘사하여 영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가 녀 달 전에 이곳(공사판, 영달은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공사장 인부임.)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임.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 작품이 어떤 시점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달은 밥값을 떼어먹고 달아남.)

누군가(정 씨)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정 씨)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답답한 심리가 반영된 행동임.)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맹공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정 씨의 외양 묘사 '작달막하다'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행동이 가볍고 키가 꽤 작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다른 소설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어휘 풀이도 반드시 확인하며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정을 나누게 됨.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인물들이 함께 길을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영달과 정 씨는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삼포(森浦)'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가 만든 허구적 공간임. 글자 그대로의 뜻은 '바닷가의 숲이 울창한 마을'로 풀이할 수 있음. 이 작품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에 해당하므로 '삼포'의 의미가 중요함. 특히 작품의 결말에 '삼포'의 달라진 모습이 나오므로 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함.)로 가고 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공간적 배경이 '들판'에서 '국밥집'으로 이동함.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들의 상황 및 심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을 통해 인물들의 갈등 변화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달이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결결 웃기 시작했다.(대전에서의 기억을 떠올린 영달의 반응)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때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노동 임금)도 실했어요.”

“살림을 했군?”

┌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조적 인식 이 구절에 나타난 영달이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이므로,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영달은 옥자를 아직 잊지 못하고 그리워함. 이 구절에 나타난 영달의 정서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시조를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옥자에 대한 영달의 감정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 영달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안정된 삶의 기반을 상실함.)

정 씨는 흐려진 영달이의 표정(옥자와의 일을 떠올리고 어두워진 영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오.”(정 씨는 영달을 위로함. 영달과 정 씨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영달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정 씨에게 함으로써, 정 씨는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영달을 위로함으로써 둘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짐.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뒤란으로 나갔던 똥똥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눈이 올 것 같은 날씨 상황)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정 씨가 똥똥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 몇 리요?”

“한 육십 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두 대쯤 있지요. **이년(백화)**을 따라 잡아 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참, 어디까지들 가슈?”

영달이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 큰길로 가실 거유?**”(부탁을 하기 위해 영달과 정 씨의 동선을 확인함.)

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왔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스물 두엇쯤 되고 머리는 긴 데다 외눈 쌍까풀인 계집년(백화)을 만나면 캐어 봐서 좀 잡아 오슈. 내 현금으로 딱, 만 원 내리다.]**([]: 백화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백화를 잡아 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함.)

정 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달이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슈. 대신에 데려오면 꼭 만 원 내야 합니다.”

“암, 내다 뿐이오. 예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까풀이예요. 잊지 마슈.”

▶ 발단: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달이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눈이 내리려고 날씨가 흐림.) 바람이 읍내의 신작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작로(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을 이르는 말. 혹은 큰길.)**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달이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황량하고 스산한 분위기 조성)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물건의 사이가 뜬)**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뽀뽀해졌다.**(눈이 점차 많이 와 하늘에 하얀 눈이 가득한 상황) 한 스무 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 이 부분에서는 ‘눈’이 서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결말에서 ‘눈발’은 등장인물의 애환, 앞으로의 시련과 관련이 있음.)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 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를 세운 비각(비를 세우고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그 위를 덮어 지은 집) 앞에서 잠깐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작로가 두 갈래(월출로 가는 길과 감천으로 가는 길)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월출로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잠깐 쉬게 됨.) **함석판(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으로 만든 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정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 고달픈 삶 속에서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들과 서정적 배경이 조화를 이룸. 작가가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겨울로 설정한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첨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까짓,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절모를 깊숙이 내려 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비유적 표현을 통해 눈 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나타냄.) 정 씨가 일어나 꾸벅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물으슈.”

“월출 가는 길이 아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재(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가 있어 댜서 아무래도 수월친 았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인데.”(눈이 많이 왔기 때문)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달이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달릅니까?”

“달다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먼.”(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향함.)

정 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숲(영달과 정 씨가 백화를 만난 장소. 공간의 이동이 나타남.)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 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정 씨와 백화는 모두 고향으로 가는 중임.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정 씨’, ‘영달’, ‘백화’ 세 명임. 세 인물의 공통점과 세 인물 각각의 처지를 파악해야 함. 세 인물은 모두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도는 뜨내기 삶을 살아가는 고단한 처지의 인생들임. 전년도와 달리 세 인물의 공통점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세 인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인간적 유대감을 쌓음. 세 인물의 심리적 거리감과 인간적(정서적) 유대감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전개: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감천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됨.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사방의 둘레)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고통의 세계라는 뜻으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르는 말) 아닌가…….”]([]: 감옥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임.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떠돌이로 전락한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줌. ‘인물들이 살아가는 당대 현실이 감옥살이만큼 힘들을 알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고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본문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는 꼭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 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찌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불을 끄기 위해)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인물들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임. 갈 곳이 있는 ‘새들’ ↔ 갈 곳이 없는 세 인물 ‘새들’과 기능이 유사한 소재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이리저리로 깃(보금자리)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백화는 가족을 위해 일상적인 삶(결혼)도 포기함. 고향의 가난한 가족으로 인한 백화의 고달픈 삶. 고향에서의 백화의 삶은 편안한 안식보다 삶의 무게가 느껴짐. 백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백화의 처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향에 빠져 버렸다.(백화가 고향에 빠지는 일을 계기로 인물들 간의 관계가 변화됨.)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꿈쩍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발이 뻘 것으로 인한 고통)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 행동 영달의 성격 및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인물의 특성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등에 업히는 것이 미안해서 하는 말)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영달의 배려. 영달은 백화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옥자를 떠올리며 백화에 대해 연민을 느낌. ‘영달은 백화의 모습에서 옥자를 떠올린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댁이 근수(저울에 단 무게의 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표현은 거칠지만 마음이 따뜻한 영달. 동행하는 과정에서 영달과 백화는 서로 가까워짐.)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기차를 타기 위한 세 인물의 공통된 목적지 ‘인물들의 첫 만남은 목적지가 같아 우연히 동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인물들이 우연히 만나 공통된 목적지를 가지게 된 것이지, 목적지가 같아서 동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시장 따위가 끝남.)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배려와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냄.)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뻘 발로 인한 고통 때문)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오?”(정 씨가 백화에게 백화의 고향에 가는 기차를 물음.)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 노자)는 있소?”]([: 정 씨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남.)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여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 시루떡(백화의 고마움을 전하는 매개체이자 영달에 대한 백화의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소재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인물들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팔 시루떡’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편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자기 뒤편의 팔 시루떡을 영달에게 주는 백화의 행동은 자신을 업어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를 통해 백화가 영달에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영달에 대한 백화의 감사와 배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일하던 _____의 일이 끊기면서 새로운 _____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 한곳에 _____하지 못하고 _____야 하는 _____영달의 삶) 새벽의 겨울바람(영달이 처한 _____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①. '겨울'과 '바람'은 보통 고통, 시련 등의 의미를 지니는 소재임. 이 작품은 '_____'이라는 _____적 배경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_____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 오는 아침 햇빛 아래 햇볕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영달이 처한 _____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②) 하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영달이 처한 _____한 현실을 보여 주는 배경 ③ '영달이 서 있는 '햇볕은 들판'의 풍경을 묘사하여 _____의 _____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가 녀 달 전에 이곳(공사판, 영달은 _____를 찾아 떠도는 공사장 인부임.)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_____가 인물의 _____를 설명하는 _____시점임.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와 _____, 서술자와 _____의 거리가 _____.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인물의 _____를 알고 있는 작품 _____에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작품 _____서술자가 인물의 _____과 _____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 작품이 어떤 시점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의 _____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달은 밥값을 떼어먹고 달아남.)

누군가(정 씨)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 흙이 부서지는 벉벅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쬐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정 씨)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멍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달이(새로운 _____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_____한 심리가 반영된 행동임.) 쪽을 보면서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달이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 오른 맹공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정 씨의 _____'작달막하다'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행동이 가볍고 키가 꽤 작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어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다른 소설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어휘 풀이도 반드시 확인하며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만난다. (길에서 _____히 만나게 된 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정을 나누게 됨. _____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인물들이 함께 _____것, _____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영달과 정 씨는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삼포(森浦)'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가 만든 _____적 공간임. 글자 그대로의 뜻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내신 읽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 |
|----|--------------------------------------------------------------------------------------------------------------------------------|
| 갈래 | 단편 소설 |
| 성격 | 사실적, 현실 비판적 |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1970년대 겨울 공간적: 시골길과 감천역 |
| 주제 |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197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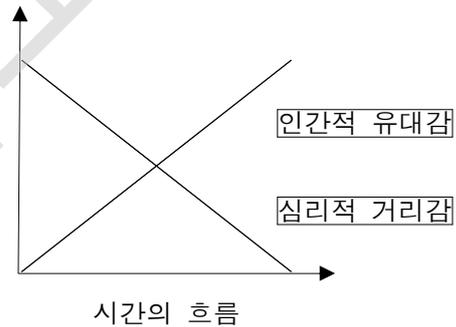
2. 구성

| | |
|----|------------------------------------------------------------------------|
| 발단 |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사판을 떠난 영달이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
| 전개 |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감천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술 시중을 들다 도망친 백화를 만나고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됨. |
| 절정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를 거절하고 백화는 떠남. |
| 결말 | 한 노인에게서 공사판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저함. |

3.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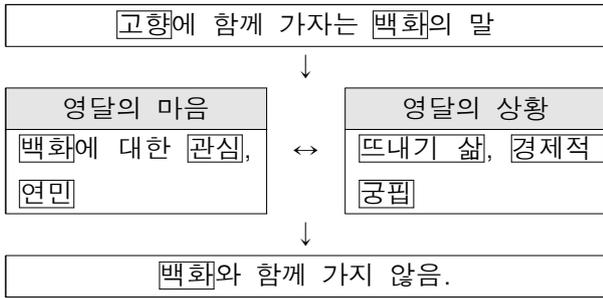
| 영달 | 정 씨 | 백화 |
|----------------------------|--------------------------|--------------------------|
| 일 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공사장 인부)임. |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삼포)으로 가는 중임. | 술 시중을 들다 도망쳐 고향으로 가는 중임. |
| ↓ | | |
| 뜨내기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 | | |

4. '길' 위에서 변화되는 인물들의 관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는 정 씨 발이 뻘 백화를 업어 주는 영달 자기 몫의 팔 시루떡 절반을 영달에게 나눠 주는 백화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백화 |
| ↓ |
|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영달, 정 씨, 백화는 동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짐. |

5. 영달의 내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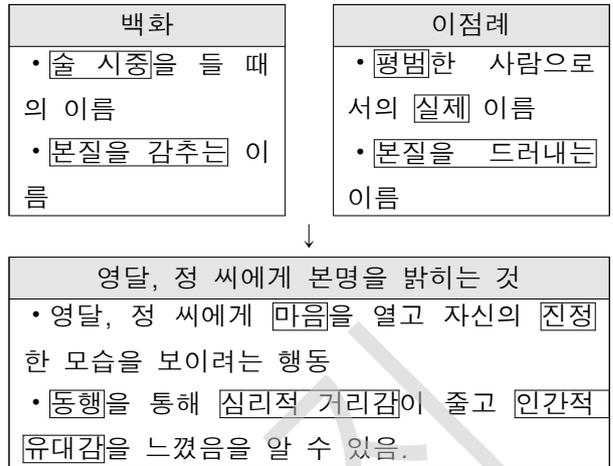
6. 영달이 백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

- 안정된 직업이 없이 정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백화와 정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난 옥자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거절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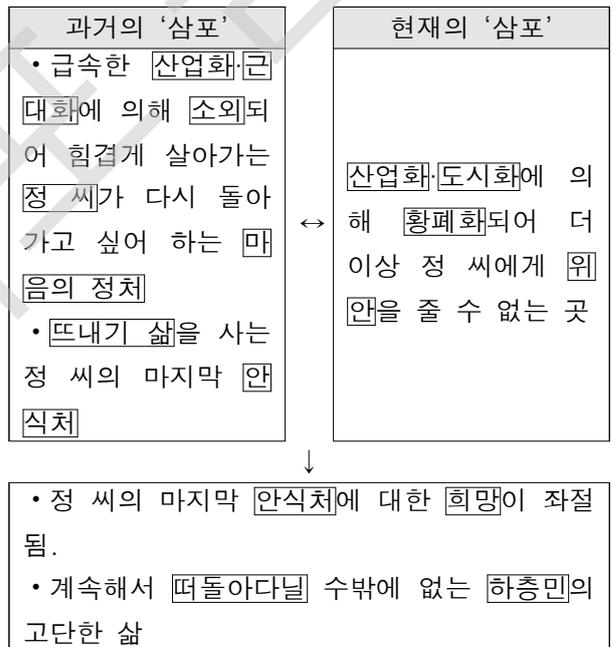
7. '팔 시루떡'과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의 의미

| | |
|----------------|-----------------------------------------------|
| 팔 시루떡 | 백화의 고마움을 전하는 매개체. 영달에 대한 백화의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소재 |
|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 | 백화를 향한 영달의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

8. 백화가 본명을 밝히는 것의 의미



9. '삼포'의 변화



10. 정 씨의 내적 갈등의 원인

개딸이 한창인 삼포는 정 씨에게 더 이상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 아니다. 도시화·산업화는 많은 이들에게 고향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공허를 가져왔는데, 정 씨 또한 그러한 상실의 공간 앞에서 정치를 잃고 갈등하는 것이다.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내신 암기 TEST 1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 |
|----|----------------------------------------------------------------------------|
| 갈래 | 단편 소□ |
| 성격 | 사□적, 현□ 비□적 |
| 배경 | • 시간적: 19□0년대 겨□ • 공간적: 시□길과 감□역 |
| 주제 | 급속한 산□화 속에서 고□을 상□한 채 떠돌아다니는 소□된 하□□의 애환 |
| 특징 | • □을 가는 과□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 19□0년대 사회 현□에 대한 작가의 비□ 의식이 드러나 있음. |

3.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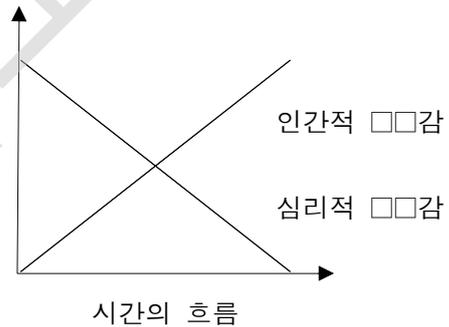
| 영달 | 정 씨 | 백화 |
|-----------------------------|--------------------------|--------------------------|
| 일□□를 찾아 떠도는 노□□ (공사장 인부) 임. | 교도소에서 나와 고□(삼□)으로 가는 중임. | □ 시중을 들다 도망쳐 고□으로 가는 중임. |

↓
뜨□□ 삶을 사는 고□한 처지

2. 구성

| | |
|----|------------------------------------------------------------------------|
| 발단 |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공□□을 떠난 영달이 삼□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
| 전개 | 삼□로 가는 기□를 타기 위해 감□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술 시중을 들다 도망친 백□를 만나고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됨. |
| 절정 | 백화가 영□에게 호□을 느껴 자신의 고□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은 이를 거□하고 백□는 떠남. |
| 결말 | 한 노□에게서 공□□으로 변한 삼□의 소식을 듣게 된 □ 씨는 마□의 정□를 잃고 주저함. |

4. '길' 위에서 변화되는 인물들의 관계



-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위□해 주는 □ 씨
- 발이 뻐 백□를 업어 주는 영□
- 자기 몫의 팔 □□떡 절반을 영□에게 나눠 주는 백화
- 자신의 본□을 밝히는 백□

↓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영달, 정 씨, 백화는 동□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살아온 이□□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마□을 열고 가까워짐.

**고1국어
창비**

2(2) 삼포 가는 길 내신 암기 TEST 3단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 | |
|----|---------------------------------------------------------------------------------|
| 갈래 | 단편 ____ |
| 성격 | ____적, ____적 |
| 배경 | • 시간적: ____년대 ____ • 공간적: ____과 ____ |
| 주제 | 급속한 ____화 속에서 ____을 ____한 채 떠돌아다니는 ____된 ____의 애환 |
| 특징 | • ____을 가는 ____에서 겪는 일들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 ____년대 ____에 대한 작가의 ____의식이 드러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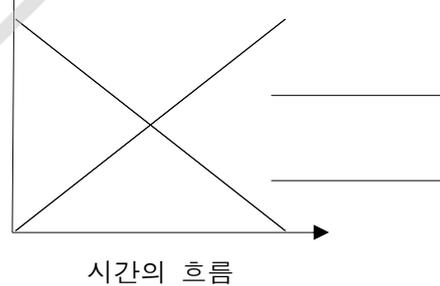
2. 구성

| | |
|----|--------------------------------------------------------------------------------|
| 발단 | 밀린 밥값을 떼어먹고 ____을 떠난 영달이 ____로 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게 됨. |
| 전개 | ____로 가는 ____를 타기 위해 ____으로 가던 중 영달과 정 씨는 술 시중을 들다 도망친 ____를 만나고 세 사람이 동행하게 됨. |
| 절정 | 백화가 ____에게 ____을 느껴 자신의 ____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____은 이를 ____하고 ____는 떠남. |
| 결말 | 한 ____에게서 ____으로 변한 ____의 소식을 듣게 된 ____는 ____를 잃고 주저함. |

3. 인물

| 영달 | 정 씨 | 백화 |
|------------------------------|-------------------------------|----------------------------|
| ____를 찾아 떠도는 ____ (공사장 인부)임. | 교도소에서 나와 ____ (____)으로 가는 중임. | ____을 들다 도망쳐 ____으로 가는 중임. |
| ↓ | | |
| ____ 삶을 사는 ____한 처지 | | |

4. '길' 위에서 변화되는 인물들의 관계



-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____해 주는 ____
- 발이 뻘 ____를 업어 주는 ____
- 자기 몫의 ____ 절반을 ____에게 나눠 주는 백화
- 자신의 ____을 밝히는 ____

↓
우연히 길에서 만난 영달, 정 씨, 백화는 ____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살아온 ____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____을 열고 가까워짐.